

|                                                                                   |                                                                                                                                                       |  |                                     |       |                    |
|-----------------------------------------------------------------------------------|-------------------------------------------------------------------------------------------------------------------------------------------------------|--|-------------------------------------|-------|--------------------|
|  | <b>천주교 서울대교구</b><br><b>구로3동 성당</b><br><b>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b><br><b>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b><br><b>☎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b> |  | 주 임 신 부                             | 정 재 준 | 사도요한               |
|                                                                                   |                                                                                                                                                       |  | 보좌 신 부                              | 정 혁   | 요셉 (청년부)           |
| <b>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b>                                      |                                                                                                                                                       |  | 전 교 수 녀                             | 강 인 석 | F.하비에르 (유·초·중·고등부) |
|                                                                                   |                                                                                                                                                       |  |                                     | 박 경 석 |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
|                                                                                   |                                                                                                                                                       |  |                                     | 정 은 자 | 한나 (원장)            |
|                                                                                   |                                                                                                                                                       |  |                                     | 김 미 리 | 에블린 (유·초등부)        |
|                                                                                   |                                                                                                                                                       |  | 꿀벌 유치원<br>요셉어린이집<br>총 회 장<br>연령회 총무 | 정 선 아 | 세레나 (중·고등부/청년부)    |
|                                                                                   |                                                                                                                                                       |  |                                     | 최 향 숙 | 베로니카 수녀            |
|                                                                                   |                                                                                                                                                       |  |                                     | 김 아 람 | 소화데레사 수녀           |
|                                                                                   |                                                                                                                                                       |  |                                     | 황 태 영 | 프란치스코              |
|                                                                                   |                                                                                                                                                       |  |                                     | 옥윤필   | 마티아 010-5117-5564  |
|                                                                                   |                                                                                                                                                       |  |                                     |       |                    |

● 위령의 날 (11/02) 미사 안내

미사 시간 | 06:30, 10:00, 19:00

- 위령의 날에 봉헌되신 모든 연령들은 매 미사마다 존함 및 세례명으로 봉헌됩니다.

●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일 시 : 11월 06일 / 오전 0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 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 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11월 01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 알 림

- 거리두기 변경에 따른 주일 미사 시간별 참석 안내

| 주일 미사 시간 | 06:30, 10:30 | 점중 완료신자 / 대성전 (130명)<br>점중 미완료신자 / 강당, 식당 |
|----------|--------------|-------------------------------------------|
| 그 외 주일미사 |              | 종전과 같은 기준                                 |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다음 주(11월 07일) 평신도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코로나 4단계 주의사항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여합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성경은 무엇인가?(1)

- 성경의 정의
  - 계시의 원천 (성경+성전)
  -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하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의 감도로 문자로 기록된 거룩한 책
- 성경이 쓰인 목적
  -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요한 20,31)

\* 2022학년도 꿀벌유치원 신입생 모집 안내 \*

- 대 상 : 2016.1.1.~2018.12.31. 출생 유아
- 접수기간 : 우선전형 11월1일(월)~3일(수)
  - {가톨릭 신자, 다자녀(자녀2명이상), 한부모 가정}
- 일반전형 11월16일(화)~19일(금)
- 접수방법 :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하여 온라인 원서접수
- 입학설명회 : 11월5일(금) 10시, 15시
  - (zoom으로 진행, 사전 전화접수 받음)
- \*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 참조
- 문 의 : 02-857-8545, 010-5797-8545

● 다음 주일(11/07)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 국수잔치 | 쉽니다. | 청 소 | 23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10월19일 ~ 10월27일)

|                               |                               |
|-------------------------------|-------------------------------|
| 교 무 금                         | 7,820,000원                    |
| 주일헌금                          | 3,618,000원                    |
| 전교주일 2차 헌금                    | 1,035,000원                    |
| 전제선10만원<br>이형순 5만원<br>정영자 1만원 | 이우선20만원<br>박정순10만원<br>김○○10만원 |
| 감사헌금<br>김시아 5만원<br>박○○10만원    | 김○○10만원                       |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 월일    | 해 설 | 독 서 |
|-------|-----|-----|
| 10/31 | 이인옥 | 김덕영 |
| 11/07 | 이영민 | 최승일 |

● 성체 분배자 명단

| 월일    | 토요주일 | 06:30 | 10:30 | 12:00 |
|-------|------|-------|-------|-------|
| 10/31 | 장인홍  | 최승일   | 이운영   | 최석준   |
| 11/07 | 박용환  | 최창열   | 손상민   | 이계명   |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패거리들’의 세상 너머로**

101.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비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상당한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가라는 내면의 부르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직무, 사회적 지위, 사회적 명망이 있는 직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당시 사회의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며,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상처 입은 채로 길가에 버려진 그 사람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집중을 분산시키는 하나의 방해물일 따름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미래 계획과는 무관한 그는 ‘무명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이러한 편협한 구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자신은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어떤 사회적 위치도 없는 그저 이방인일 따름이었습니다. 아무런 소속도 지위도 없었던 그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부상당한 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여정을 중단하고 계획을 수정하여 그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102.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정체성을 고수하는 사회 집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성장하는 오늘날 세상에서, 이 이야기는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낮은 존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웃답게 행동할 가능성조차 배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만이 이웃으로 여겨 집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는 모든 의미를 상실하고, 특정 이익을 추구하고 동업자 ‘패거리들’만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 **자유, 평등, 형제애**

103. 그저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거나 행정적으로 평등이 보장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형제애가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애는 반드시 더 큰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그 결과 자유와 평등이 증진됩니다. 형제애가 의식적으로 함양되지 않는다면, 형제애에 대한 교육, 대화, 상호 관계와 공동 번영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형제애를 증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삶, 곧 순전히 마음대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을 선택하고 그저 소유하거나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조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이해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지향하는 자유의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104. 평등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추상적인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평등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형제애를 함양한 결과입니다. 그저 ‘패거리’만이 될 수 있는 이 들은 닫힌 세상을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어떤 패거리에도 속하지 않지만,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이들을 위한 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